

고려해, 동경로 대미 대미서

1985. 1. 28 상리회관기서

## 생명 문화 운동(강의 3)

박 영 숙

(NCC 여성 위원회 위원장)

생명문화운동이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앞에, 역사앞에”라는 주제로 모였던 새로운 과제모색을 위한 모임에서 설정한 목적지향적인 운동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른 오늘에 와서 기장여신도회는 “생명, 평화, 정의”운동의 뿌리를 하나로 간주하고 민족의 통일문제까지도 생명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보면 정의의 열매가 평화라고 하였듯이 평화와 정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평화란, 생명보존의 근원이 되는 이상 이세가지 운동은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장여신도회가 전개하고 있는 생명문화운동은 사실상 70년대에 이르러 표제는 다르다고 하나 국내외의 뜻있는 집단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지역에서의 “Life on Earth”, “C.N.D”(Campaign against Nuclear Weapon Deployment), 또는 “Women's Peace & Justice Commission”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명운동, 핵무기반대운동 또는 여성의 인간화운동 이라든지 구라파의 “생명을 위한 기도행진”을 비롯한 30~40 만이 동원되는 대형 평화시위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생명보존을 위한 여러형태의 인간의 몸부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표출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자체가 이것을 제제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잘못된 인식속에 잠재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것으로 압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교회여성들이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앞으로 기대를 크게 갖어 봅니다.

생명문화운동이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모든 사물 즉 피조물이 정상상태, 다시 말하면 제 있을 자리 -하나님의 창조질서- 에 있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누적된 모순에서 해방시켜 모든것이 창조된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문화 운동입니다.

이운동은 인간이 창출해낸 오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인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한 시각은 70년대에 유엔에서 제정한 표제에서도 읽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도의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관심한 “인간환경 위기의 해”, 74년도의 지구상의 인구폭발의 문제와 이에 따른 식량문제, 도시화의 문제등의 심각성을 염려한 “인구의 해”, 75년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여성의 인간화와 그들의 참여를 주창한 “여성의 해”, 그리고 76년도의 인간의 소비태도의 검토를 위한 “소비자 보호의 해”등이 바로 그런 시각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유엔이 이러한 시각을 지니게 된것은 60년대말에 발표된 Rome Club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Rome Club

은 세계각국의 학자, 재계, 정치계 그리고 군인들도 포함된 인사로 구성된 클럽으로서 이들의 조사보고 내용은 ① 천연자원의 매장량의 한계 ② 지구라는 공간의 한계 그리고 ③ 인구증가가 몰고 오는 병리현상을 말해준 것으로서 이때까지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낙관론의 종식을 예고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세계의 인간군들이 오늘의 생활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죽음을 경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생활태도중의 예를 들어 본다면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량에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1959년에서 68년에 이르기 까지 불과 9년사이에 사용한 석유량은 역사가 생긴 이래 전인류가 사용한 전량보다 많은 석유를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석연료는 몇억만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인간이 써버려서 바닥이 나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3년에 일어났던 석유파동은 유가인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큰 충격을 준것도 사실이지만 어떤이는 말하기를 후손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그들의 발전계획을 0%에 머물게 함으로서 석유의 사용량을 줄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역으로 70년대에 들어서서 중공업시설확충으로 발전계획의 박차를 가하므로 오늘의 많은 착오의 원인이 된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인류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즉 대파국이나 소파국이나? 죽을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일차대전전까지 팽배했던 인간에 대한 낙관론은, 인간은 이성적이며 기술의 발달은 지상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차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미 이루어 놓은 인간의 기술발달이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의 파멸을 초래한것을 보며 서구문명의 비극과 기술비판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채 기술의 발달은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가 생겨지고 기술은 무력화어로 기울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힘이 곧 진리라는 철학이 지배하는 세계가 형성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강대국들은 그들대로 약소국가들에게 힘의 횡포를 과시하는가 하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제3세계 국가들은 군국주의의 손아귀에 잡히게 되어 제1세계의 무기의 시장으로 전락하는 한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은 무한대의 생산기능으로 소비 미덕의 현대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도의 군국주의 팽창과 무기생산의 결과로 인류가 멸망직전에 놓이게됨에 따라 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제3세계에 있어서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인권운동이 또는 군비에 돈을 낭비하는 나머지 생겨난 빈곤 문제에서 헤어나려는 정의운동이 일어났으며, 소비성을 강조한 결과로 생겨진 생태학적 위기극복에 저항하는 갖가지 운동이 생겨났읍니다. 이 모든 운동의 근원을 살펴보면 인간생명의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진원은 능률위주, 속도위주, 편리위주, 힘이 제일, 또는 개인주의등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 발전문제

현대사회는 산업사회 즉 공업화가 그 특징입니다. 이것은 ① 기계화와 ② 분업화를 가져옵니다.

기계화는 대량생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소비사회가 형성이 되어 이것은 결국 자원을 고갈되게 하고 그 반면에 그것은 쓰레기를 많이 산출하게 되어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A. 소비사회는 소유로서 가치기준을 삼으며 그러다 보니 경쟁을 해야하고 이것은 극도의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쟁은 물질을 편재하게 하고 그것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B. 자원고갈 : 1985년 부터는 지하자원의 고갈연한에 돌입 한다고 합니다.

80년도 추산으로 앞으로 석탄은 100년 석유는 20~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했으나 80년도 수준 이상으로 쓰게되면 그 연한은 더욱 짧아지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 연료로 쓰이는 것이 미래에서는 식량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쓰는것은 후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 생태계 파괴 : 자연자원을 탕진해서 얻은 결과가 경제성장의 댓가인데 그 댓가는 결국 환경오염을 만들었습니다.

공업화는 기계화와 동시에 분업화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인격이 아니고 기계와 같이 기능으로 판단되어지며 인간은 결국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능으로 따지면 인간이 기계를 따를 수 없어 인간은 기계로 부터 소외되어 생산하는 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몰가치해 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인간취급을 못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약자, 가정에서 보수로 계산되지 않는 경제생활에만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천대받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산업화 현상인 소비위주나 산업발전위주의 정치나 경제가 물고 가는 방향이 어느쪽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중에서도 약자와 자연을 정복 또는 희생시킴으로 이룩되는 죽음을 향한 대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과학, 기술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혜택만 준것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한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서에도 보면 도시문명을 비판하고 우리에게 경고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9절을 보면 기술문명과 도시문화에 대한 비판과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기자가 본 인간타락의 요소는 사람이 돌대신에 벽돌을 구웠고 흙대신에 역청을 쓴데서 비롯된 기술도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는 인간들의 욕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즘 성경의 바

벨 탑이 실지로 발견되었다는데 (91 m ~ 92 m) 이것은 현대건물의 30~40 층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흐트러 놓아야 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못하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습니다.(사실 현대의 인공수정, 성전환, 유전공학등은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언어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감명깊게 읽은 “파파라기”라는 소설자는 남태평양의 소박한 추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 “파파라기”의 뜻은 “천국의 파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문명인인 백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인이 들어오기 전에 섬은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이들이 들어온 후로 모든 자연을 사유화시켜 하나님을 가난하게 했다고 표현했읍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문명의 팽창을 번영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생명창조가 아니라 생명소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발전이 더디더라도 물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수는 없는 것일까를 문제 삼은것이 생명문화운동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심각한 식량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교육문제를 야기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폭발문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빈부격차,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힘의 횡포적인 불의의 문제, 그리고 세계를 전쟁으로 휘몰아가고 있는 긴장상태와 가공할만큼 만들어내는 다량살

상의 새로운 핵무기생산등으로 인한 평화문제위협, 우리의 경우는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에서 제한핵전쟁의 위협 마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생활태도는 한결같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지하시인은 그의 글에서 오늘의 문화정체과악을 “반인간적” “비인간적” 또는 보다 큰 틀에서 “반생명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문화의 틀 안에서 또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창출은 불가하고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반성과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는 “생명문화운동”으로 다른나라에서는 “녹색당운동” “평화운동” “반공해운동” “반문화운동” “히피운동” “반문명운동” “여성의 인간화운동” 또는 “단순한 생활운동”등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러한 운동이 과거의 윤리차원에서 벗어나서 정치차원으로 이끌고 나가 선거공약으로 이러한 문제가 관심을 모으게까지 되었습니다. 금번 12대 총선에 있어 유권자의 58%가 20~30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정치차원으로 이러한 생명문제를 제기해 볼만도 하다고 봅니다.

생명문화운동이란 새로운 문화방향 설정에 있어서 “생명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생명 현상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관, 세계관, 인간관, 교회관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W.C.C 총무 Philip Potter 는 1982년 제2차 UN 특별회의에서 한 “생명을 택하시오”라는 연설에서 성경구절을 하나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파란만장의 역사를 더듬고 있을때 그들에게 한말을 인용했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앞에 내어 놓는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신명기 30:15-19)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생명의 원리, 생명의 질서를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원리인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너와 일치시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설명할때 한몸의 원리를 즐겨 생각합니다.

그것은 떼어내거나 소통이 안되면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산·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한몸의 원리,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계란,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국제관계도 생명체로 존재하지 않는한 죽은것이 됩니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남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삼았을때 너도 나도 구원을 받은 것 처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이란 네가 살 때 바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서양사람은 동양사람에 비해 '자연은 나의 한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연이라는 것을 자원으로만 파악해서 정복대상, 발전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은 집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태계라는 ecology의 어원은 오이코스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자연을 손상시키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한쪽으로 자본 혹은 권리가 쏠리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 신학의 조류에서 약한자, 눌린자들만 지지하는데 대해서 다른 부류에서는 이에 맞서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처진자들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란 나눈다는 것으로, 산다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문제도, 밥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짐을 져준다는 뜻으로 전용된답니다.

생명운동이란 새로운 가치창조 운동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사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민중운동도 생명운동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누적된 이그러짐과 기울어짐과 깨진것을 바로 잡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문화운동의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역사 추세를 꺾는 일입니다.

이기는 것이 진리를 → 짐으로서 이긴다 (그리스도의 삶)

힘은 힘으로서 대결하는 원칙 → 비폭력으로 싸운다. (같은 가치관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힘을 무력하게 하는 새로운 가치)

최고, 제일주의를 → Simple life 운동으로 전환한다 (외채 줄이기 위한 국산품 애용등)

생명을 중요시하는 문화운동은 오늘날의 문화나, 문명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부분이 빈틈없이 속속들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것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한 인간은 산업발전을 위해서 관리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밖에 보지 못했고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의원리, 정복의 원리, 이기는 것이 진리라는 철학에서 출발된 죽음의 문화는 남성들이 주로하고 남성위주였습니다. 이것을 남성적인 문화라고 할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 문화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적인 문화이든 여성문화 이든지 간에 — 하여간 새로운 가치를 가진 인간이 태어나야 합니다.

마르쿠제는 인류의 멸망요인을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와 인간에 의한 자연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Feminist Socialist 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적인 인간 — 여기에만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여성에 의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고유의 성품이 아니라 오랜 고난에서 얻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모성적인것, 희생정신, 남을 섬기는 태도, 궂은일을 말없이 해내는 것, 대지와 같이 순화한것 등은 남을 위해 자기를 깎는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성품입니다. 바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에서는 여성인간군이 보다 많이 간직하고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여성은 종래의 가족적 모성애에서 민족적, 인류를 위한 모성애로 발전, 발휘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초개와 같이 여기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 여성들은 지녀야 합니다. 역사의 대세를 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내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현실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처럼 우리 여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